

인도 : 이영제 목사

묵	도	다	같	이				
기	원	인	도	자				
개	회	송	91장	다	같	이	
교	독	문	73번	다	같	이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다	같	이				
기	도	이	영	제	목	사		
성	경	봉	독	히 2:14-18	다	같	이
특	송							
설	교	예수님은 누구 신가?	이영제목사				
			(17. 나의 해방자이신 예수님)						
찬	송	다	같	이				
헌	금	다	같	이				
봉	헌	기	도	인	도	자		
광	고	인	도	자				
송	영	다	같	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축	도	인	도	자				

지난 설교제목 : 길, 주, 생명, 진리, 부활, 생명의 떡, 흠과 신로, 왕, 돌는 해, 신랑, 산돌, 반석, 영, 감독, 양의 문, 선한목자

주앙교회 5대 실천강령

- ◇ 24시간 쉬지 않는 릴레이 기도로 성도 자신이 성령 받고 교우와 선교사를 위해 중보기도 한다.
- ◇ 본 교우는 모두 주 예수그리스도를 바라고 예배하여,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예수의 제자가 된다.
- ◇ 모든 교회재정(십일조, 감사, 선교헌금 등)의 지출은 선교비를 최우선적으로 배정한다.
- ◇ 선교에 주력하는 교회로 선교의 기틀을 마련하여 오는 세대에게 복음과 선교정신을 물려준다.
- ◇ 교회 내 모든 기관은 선교 체제로 조직 운영하며 자발적인 봉사와 헌신으로 운영한다.

주앙교회 24시간 기도

■ 기도 참여자 ■

매일 1시간 : 오전6시(차영숙) / 오후1시(이영제)
6시(김효선) 유동(이창걸)

■ 기도 제목 ■

○ 주앙교회를 위한 기도제목

24시간 릴레이 기도팀이 하루속히 완성되도록
교회의 파송선교사(김형주, 정00)님을 위해서
중국의 00교회와 리00전도사님을 위해서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도록
피아노 반주자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앙교회 가족 모두가 주님의 축복으로 평안할 수 있도록

○ 이영제 목사님을 위한 기도제목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가 넘치도록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위해서
인도차이나선교대회(11월 24-27일 캄보디아 씬리암)에 특강

○ KCM을 위한 기도제목

인터넷을 전도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KCM 파송 및 협력선교사님을 위해서
멀티미디어팀이 잘 운영되도록
세계선교정보연구원 모임이 잘 활성화 되도록

○ 해외선교를 위한 기도제목

세계의 한국선교사님들의 영, 육 간의 건강을 위하여
사단의 방해가 물러가며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아직까지 복음을 한번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을 위하여
해외 선교를 위해 수고하는 국내의 선교단체들을 위하여

교회 소식

- ♥ 주앙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 피아노 반주자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 ♥ 24시간 릴레이 기도팀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 2부 예배에는 영세교회 중고등부 학생이 함께 예배드립니다.

이영제 목사가 직접 연구한 히브리서 주석자료를 기초로 강해설교 합니다.

11:1-12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에스틴) “...이다”의 맨 처음 동사가 현재 직설법으로 이 시제를 포함하여 번역한다면 [믿음은 현재 희망하는 것의 본질 이요]가 된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 못하는 것” (프라그마톤) “ 행위, 성취된 일, 사물,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뒤에 (우) “ 아니다”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되었다. 이 단어는 히6:18 “ 사실”, 히10:1 “ 향상”으로 번역되었으며 눅1:1 “ 사실”로 나온다. 플라톤의 철학에서 이 말은 보이지 않은 하늘나라의 것들이 아니라 종말론적 미래에 나타날 사건들을 가리키는 것을 암시한다.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으니라** “ 선진들” (프레스뷔테로이)은 ‘ 조상들’과 동일한 의미로 구약성경의 믿음의 의인들을 가리킨다. “ 이로써” (엔 타우테 가르)는 “ 이것 때문에” (타우테)가 형용사 대명사적 지시사로 1절의 말씀을 그리키고 있다.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 믿음” (피스테이)는 헬라어는 문장의 첫 부분으로 시작할 때 첫 단어에 한해서 대문자를 사용하는데 본 장에서 본 절부터 31절까지 나온다. 본 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할 만큼 이 단어가 제일 많이 사용된 곳이다(18번). 히브리서의 단 한번 더 사용된 곳은 히4:2이며 행3:16, 행6:7, 행26:18, 롬3:28, 4:19, 20, 5:2, 11:20, 14:1, 고전16:13, 고후1:24, 8:7, 13:5, 갈2:20, 골1:23, 2:7, 딤펴전1:2, 4, 2:7, 15 등에 나온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 보이는 것” (토 블레포메노)는 헬라철학의 영향을 받은 유대주의 전통에서 나온 말로 가시적인 우주를 가리키는 말이다. “ 나타난 것” (에크 파이노메노)은 헬라의 전통 철학에서 유래한 말이다. 저자의 의도적으로 유대철학에서 기인한 단어와 헬라철학에서 나온 말을 사용하여 당시 퍼져있던 플라톤과 필로의 우주론(대초에 혼돈 상태에 있었던 가시적인 물질들을 사용하여 창조했다는 이론)의 시각의 그릇된 점을 알리고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을 강조하고 있다.

4절 저자는 2절에서 “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는 말씀을 본 절부터 31절까지 나열하며 설명하고 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니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창4:3-5을 인용한 것으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증거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본서의 저자는 그 이유가 믿음에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 말하느니라” (라레이)는 직설법 현재형 능동태로 현재에도 계속하여 말하고 있는 상태임을 뜻한다. 창4:10 “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의 말씀을 암시한다. 예수께서도 “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라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눅11:50-51)고 하셨다.



이영제 목사
주앙교회 담임
컴퓨터선교회 대표

칼빈의 설교 마지막에는

16세기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설교와 우리 시대의 설교를 비교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발견된다.
그는 수천 편의 설교를 하면서 늘 마지막에는
“자, 이제 은혜롭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십시오.”
라는 말을 덧붙이곤 했다.
이렇듯 종교개혁 시대의 설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복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하지만 현대의 설교는 마치 하나님이 엎드려 절해야만 하는 것처럼 인간을 중시하고 높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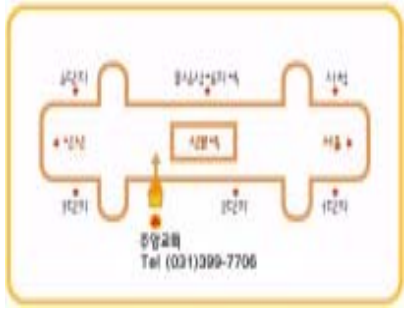
주앙교회 파송, 협력하는 선교사

남아프리카공화국 김형주 선교사 / 필리핀 정형구 선교사
베트남 정00 선생 / 중국 리00 전도사 / 인도 초띠옥이 자매
파키스탄 정00 선교사 / 미국 김능수 전도사

• 예배시간 안내 •

주일 예배	오전 11시
주일 오후(성경 강해)	오후 2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수요 예배	오후 7:30분
금요 심야기도회	오후 9시

• 주앙교회를 찾아오시는 길 •





제목 : 예수님은 누구 신가?

(16. 나의 선한목자이신 예수님) / 본문 : 요 10:1-18

성경에는 양이라는 말이 약 500번 넘게 나옵니다. 양은 창세기 4장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담의 두 아들이 가인은 농사를 지었는데 아벨은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양은 인류 시초부터 사람과 함께 살아온 동물입니다.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은 목축을 생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는 마을마다 공동 소유로 양의 우리를 지었던 것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이리와 짐승 떼와 도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양의 우리는 약 3m 정도의 높이로 울타리가 쳐졌고 밤이 되면 목자들은 그의 양떼를 우리에 넣어두었고, 문지기는 그 앞에서 밤새도록 보초를 섰습니다. 그런데 이런 양들을 노리고 몰래 찾아오는 자들이 있었으니, 절도요 강도였습니다. 이들은 캄캄한 밤에 양들을 훔쳐 팔아먹고자 아무도 모르게 담을 넘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아무 거리낄 것이 없기에 떼떽하게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어 목자들이 오면 문지기는 문을 열어 줍니다. 그러면 목자는 들어가 각각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얼룩아, 순둥아, 말쟁아” 그러면 양들은 신기하게도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고 양이 그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목자와 양의 관계가 인격적이고 긴밀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목자는 양들을 도매금으로 부르거나 번호를 붙여 부르지 않습니다. 평소에 관심을 갖고 살피며 일일이 이름을 붙여 주고, 양도 목자가 자기에게 붙여준 이름을 알게 됩니다.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불러 우리에서 내어놓은 후에 양들 앞서 갑니다. 보통 떼지 같은 짐승들은 뒤에서 회초리로 때리며 몰아야 꼴꿀거리며 앞으로 갑니다. 그러나 양은 목자가 앞서가야 따라갑니다. 양은 앞을 잘 보지 못하고 두려움이 많기에 뒤에서 물면 오히려 두려워서 절대로 앞서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앞서가며 본을 보이면 목자를 깊이 신뢰하고 두려움 없이 따라옵니다. 이 비유는 팔레스타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실제의 풍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늘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양에게 발달된 것이 있다면 귀뿐입니다.

양은 주인의 음성을 알아야 합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고로 따러 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요 10:3-5)

양의 주인은 자신의 양들이 알아듣는 이름을 부릅니다. 양들은 사람과 달리 청각이 발달되어 있어서 목자의 음성과 타인의 소리를 구분합니다. 목자가 아니면 양들은 순간 흩어져 자신들에게 닥칠 위험한 상황을 피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에 대해서 양 자신보다 목자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① 양의 필요 ② 양의 건강 상태 ③ 양의 요구 등을 다 알고 계십니다.

지난주(2003.10.19) 설교 요약

대한예수교장로회

주 앙 교 회

JOOANG PRESBYTERIAN CHURCH

표어

말씀으로 은혜가 가득한 교회

기도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

봉사로 사랑을 나누는 교회

선교로 기쁨이 넘치는 교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사 40:31)

담임목사 이 영 제
Pastor Lee, Young Jae

435-050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873-3(제일프라자 5층 본당, 사무실 4층)

교 회 : (031)399-7706 선교회(KCM) : (031)399-7705

목사관 : (031)398-7702 핸드폰 018-213-7702

Homepage : <http://kcm.co.kr/church/> Email : webmaster@kcm.co.kr